

【 P1-24 】

## 울산지역 중·고등학생의 사회인구학적 변수, 비만에 대한 관심 및 다이어트 행동

서정희, 허은정, 홍순명<sup>1</sup>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울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sup>1</sup>

### Socioeconomic Variables, Concern about Obesity, and Diet Behavi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Ulsan

Jeonghee Seo, Eunjeong Huh, Soon-Myung Hong<sup>1</sup>Department of Child & Welfare, University of Ulsan, Department of Food & Nutrition, University of Ulsan<sup>1</sup>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565명(남학생 236명, 여학생 327명)을 대상으로 비만에 대한 관심과 다이어트 행동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조사대상 학생들의 BMI(Body Mass Index)에 따르면, 중학생의 58.2%와 고등학생의 68.2%가 정상체중 범위에 포함되었고, 과체중인 학생은 중학생의 3.1%와 고등학생의 4.8%였으며, 비만에 해당되는 중학생(0.4%)과 고등학생(0.7%)은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비만에 해당되는 학생보다는 저체중인 학생들이 훨씬 많았는데, 중학생의 약 38%와 고등학생의 약 26%가 저체중이었다. 학생들의 비만에 대한 관심은 중간정도 수준이었고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다이어트 행동에 대해 질문한 결과, 중학생은 평균적으로 다이어트 행동은 하지 않는 편이라고 답하였고, 고등학생은 '그저 그렇다'고 답하여, 조사대상 학생들이 비만에 대해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이면서 다이어트 행동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조사대상 학생들의 비만에 대한 관심과 다이어트 행동의 분산 분석 결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비만에 대한 관심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한달 용돈, 아버지의 학력, 성별 및 학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다이어트 행동에 있어서는 조사대상자의 한달용돈, 월평균 가계소득, 아버지의 학력과 직업, 성별 및 학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한달 용돈이 제일 적은 집단(5만원 미만)이 비만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제일 높았으며, 한달 용돈이 제일 많은 집단(10만원 이상) 비만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제일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이 그리고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비만과 다이어트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형변수에 따른 비만에 대한 관심과 다이어트 행동의 분산분석 결과, 모든 체형변수들(신장, 체중, PIBW, BMI)에 따라 학생들의 비만과 다이어트 행동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신장과 체중이 중간집단의 학생들과 PIBW가 정상체중에 속하는 학생들이 다른 집단의 학생들보다 비만과 다이어트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체중이 많이 나가는 집단과 PIBW가 초과체중에 속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비만과 다이어트 행동에 대해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학생들의 건강과 적절한 운동 및 바람직한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 학교와 가정에서 연계하여 교육시킴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다.